아케노베 광산 메이신 전차는 1929년에 건설되었으며, 아케노베의 광산에서 미코바타의 선광장까지 광석을 운반하는 6km의 철도였습니다. 1945년 광산은 좁은 터널에 맞도록 설계된 객차를 도입해 직원들이 두 마을을 오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49년 이 서비스는 일반 대중에게도 확대되었고, 통근과 생활에 편리한 대중의 발이 되었습니다. 전차의 승차 운임은 딱 1엔이었기 때문에 ‘1엔 전차’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객차는 메이신 전차가 영업을 중단하고 아케노베 광산이 폐쇄되기 2년 전인 1985년까지 매일 운행되었습니다.

그 객차 중 3량은 지금도 아케노베에 전시되어 있으며, ‘시로가네(은)’, ‘아카가네(구리)’, 그리고 ‘구로가네(철)’ 라고 불립니다. 2010년 전국 규모의 모금운동과 자원봉사활동 덕분에 방문객을 수송하는 ‘구로가네’ 열차용 70m의 선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선로는 150m까지 연장되었으며 4월에서 11월 사이에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여름방학, 골든위크 등 특정일에 승차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